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날짜: 2023년 4월 12일(수)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010-3218-4641) 한국진보연대 김지혜(010-7290-4028)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방류)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1. 인사드립니다.
2.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울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5.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입니다.
6.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782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또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방류)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 사업계획

1. 제 단체 및 지역 간담회를 통한 지역별 대책위 구성

2. 국제연대사업 및 일본단체와의 연대활동

-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맞아 국제행동 진행 (6/8(목) 오전 11시)
- 일본 원전 전문가 초청행사
- 일본 방사성 오염수 국제 토론회 개최

3.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방류)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

4. 매월 범국민대회 진행(4월 2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 5월은 20일경으로 추진)

5. 5월 한미일정상회담 시점 대응 등 강제동원 굴욕해법, 독도 문제 등 연대 확대

## ※ 우리의 다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천명하게 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요구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미온적이고 소극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에 나선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제 연대를 조직하고 활성화해 일본 정부를 압박한다.

## [개요]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방류)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 주최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및 공동주최 연명단체
  
- 프로그램
  - 경과보고
  - 인사말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각계발언
    - 환경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먹거리 - 김은영 한살림연합 환경활동회의 의장 / 한살림서서울생협 이사
    - 농민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법조계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변호사
    - 여성 -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 노동-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사업계획 발표 : 이승훈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수화 행복중심 서울동북생협 이사장

## [기자회견문]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ALPS**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2개 연명단체

(사)광주여성의전화/(사)노동실업광주센터/(사)생명평화마중물/(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사)행복중심생산자회/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615시민합창단/AOK한국/GMO반대전국행동/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원대민주동문회/강원먹거리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겨레하나/경기광주여성회/경기먹거리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북먹거리연대/경산

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령군농민회/고삼농협/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

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구례군농민회/구례군여성농민회/구로교육연대회의/구로리사이클링/구미참여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군산시농민회/금강산평화잇기/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장생명선교연대/기후위기경남행동/김제시농민회/김제시여성농민회/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김천시농민회/김포시농민회/김해시농민회/김해진보연합/나라사랑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OB/나주시농민회/나주시여성농민회/나주진보연대/남농영농조합법인/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양주테마파크/남원시농민회/남해군농민회/남해군여성농민회/남해민중연대/남해여성회/노동건강연대/노동당/노동당사회운동위원회/노동문예창작단가자/노동전선/노동희망발전소/노원도봉교육공동체/녹색당/녹색당경남도당/녹색미래/녹색연합/논산시농민회/논산시여성농민회/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다음교회/단양군농민회/담양군농민회/당진시농민회/당진시여성농민회/당진어울림여성회/대경진보연대/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대구경북주권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대전청년회/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푸름/동부교육시민모임/동학실천시민연대/두레생산자회/두레생협연합회/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디자인밝은세상/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목포산돌교회/외내뜰영농조합/무안군농민회/무안군여성농민회/무주군농민회/문화공동체원주더나은/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미디어협동조합청어/민들레/민문연고파지부/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TV시민모임/민자통/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련경산지역/민주노련광성지역/민주노련광주상무지역/민주노련광주양동지역/민주노련구로금천개봉지부/민주노련구로금천마리오지부/민주노련구로금천지역/민주노련 김포지역/민주노련 남동 신대방지부/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지부/민주노련남동지역/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지역/민주노련노량진지역/민주노련대구목련지역/민주노련대구신매지역/민주노련동대문중랑결혼2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

농협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1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2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민주노련동대문중랑지역/민주노련동울산지역/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민주노련 동작지역/민주노련 말바우지역/민주노련 무안지역/민주노련 밀양지역/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민주노련 북동부지역/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민주노련 북부지역/민주노련 서강지역/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민주노련 서부지역/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민주노련 송파지역/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민주노련 시흥지역/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민주노련 안산지역/민주노련  
 양주지역/민주노련 여수지역/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민주노련  
 영등포지역/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민주노련 용인지역/민주노련  
 울산지역/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민주노련  
 인천서부/민주노련 인천지역/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종합역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화신역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지역/민주노련 죽도지역/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민주노련  
 중부지역/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지산지역/민주노련 진주지역/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민주노련 충청향남지부/민주노련 충청지역/민주노련태평백화점주변(동작지역)/민주노  
 련  
 포항오천지역/민주노련푸른길지역/민주노련함안지역/민주노련해남지역/민주노련화성오산  
 평택지부/민주노련화성오산지역/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동문화86동기회/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민주통일평화포럼/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  
 족운동협의회/밀양시농민회/발같이운동본부/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보건의료노조울  
 산병원지부/보건의료단체연합/보령시농민회/보성군농민회/보험이용자협회/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부산경남주권연대/부산민중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회/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부산학부모연대/부안군농민회/부여군농민회/부  
 여군여성농민회/부천청년회/분당여성회/불교기후행동/불교환경연대/비폭력평화물결/빈민  
 해방실천연대/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사월혁명회/사천시농민회/사천여성회/사천진보연합/  
 산청군농민회/산청진보연합/상죽농협/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상주시농민회/상주시여성  
 농민회/생드르영농조합/생명안전시민넷/생명평화교회/생명평화포럼/서귀포여성농민회/서

귀포여성회/서비스연맹마트노조인부천본부/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대민주동문화/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먹거리연대/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서울여성연대(준)/서울주권연대/서울진보연대/서울참교육동지회/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통일의길/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서천군농민회/성남여성회/성남청년회/성남평화연대/성주군농민회/성주군여성농민회/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진보연대/수원청년회/수원평화나비/순창군농민회/순창군여성농민회/순천시농민회/순천시여성농민회/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시민모임독립/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시민방사능감시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신대승네트워크/아가페교회/아산시농민회/아이쿱생협연합회/안동시농민회/안동시여성농민회/안민교회/안산청년회/안산희망교회/안성시농민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알바노조/야마기시증실현지영농조합법인/양구군농민회/양구군여성농민회/양산시농민회/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양심과 인권

나무/양심수후원회/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언니네텃밭/에너지정의행동/여성환경연대/여수진보연대/여순항쟁서울유족회/여주군여성농민회/여주시농민회/연천군농민회/열린사회희망연대/영광군농민회/영광군여성농민회/영동군농민회/영암군농민회/영양군농민회/영주시농민회/영천시농민회/예벳교회/예산군농민회/예수님길교회/예수살기/예천군농민회/옥천군농민회/온순환협동조합/완주군농민회/용인여성회/용인청년회/우리누리평화누리/우리다함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우리학교시민모임/우키시마호사건해결촉구국민회의/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청구인대표자회의/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겨레하나/울산새생명교회/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주생명농업/원주시농민회/원평화/유라시아평화의길/음성군농민회/음성군여성농민회/의령군농민회/의성군농민회/의성군여성농민회/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이천여성회/익산시농민회/익산시여성농민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노사모/인천새벽교회/인천송현샘교회/인천자주평화연대/인천참여론시민연합/인천통일로/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일본방사능오염수저지경남행동/임실군농민회/임실군여성농민회/자연을닦은사람들/자원순환사회연대/자주평화친선의사연대동백/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장수군농민회/장애인부모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장흥군농민회/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먹거리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남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급식지부/전국민중행동/전국빈민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전국어민회총연맹경남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전국여성연대/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주거대책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학생협회 수도권 통합지부/전국회의 강원지부/전국회의 경기지부/전국회의

경남지부/전국회의경북지부/전국회의광주지부/전국회의대구지부/전국회의대전지부/전국

회의부산지부/전국회의서울지부/전국회의울산지부/전국회의인천지부/전국회의전남지부/전국회의전북지부/전국회의제주지부/전국회의직할지부/전국회의충남지부/전국회의충북지부/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진보연대/전농강원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농광주전남연맹/전농부산경남연맹/전농전북도연맹/전농제주도연맹/전농충남도연맹/전농충북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두환심판국민행동/전북먹거리연대/전여농강원연합/전여농경남연합/전여농경북연합/전여농광주전남연합/전여농전북연합/전여농제주도연합/전여농충남연합(준)/전주시농민회/전주시여성농민회/정선군농민회/정읍시농민회/정읍시여성농민회/정치하는엄마들/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제천시농민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경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부산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서울연합/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주권자전국회의/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지역재단/직접민주주의연대/진도군농민회/진보당/진보당 경기도당/진보당 경남도당/진보당 경북도당/진보당 광주광역시당/진보당대구시당/진보당대전광역시당/진보당 부산시당/진보당  
 서울시당/진보당울산시당/진보당인천시당/진보당전남도당/진보당정읍시위원회/진보대학생넷/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진보대학생넷제주지부/진안군농민회/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진천군농민회/진천군여성농민회/진해여성회/진해진보연합/징검다리교육공동체/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참살이문학/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창녕군농민회/창녕군여성농민회/창녕진보연합/창원여성회/창원진보연합/천안시농민회/천안여성회/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철원군농민회/청년농업인연합회/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청송군농민회/청양군농민회/청주시농민회/청주청년회/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촛불문화연대/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촛불혁명완성연대/춘천시농민회/충남먹거리연대/충북먹거리연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주시농민회/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인증제도를혁신하는사람들/코리아국제평화포럼/탈핵부산시민연대/터사랑청년회/토닥토닥바른교육을위한부모회/토종씨드림/통일공방/통일광장/통일나무/통일로/통일바람/통일시대연구원/통일의길/통일중매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팔당생명살림/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평등교육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택시농민회/평택여성회/평택청년네트워크피움/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길/평화통일교육센터/평화통일센터하나/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회의/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포천시농민회/포항시농민회/푸른들영농조합/하남여성회/하남청년회/하남희망연대/하동군농민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시민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유기농업협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마음공동체/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한살림생산자연협회/한살림연합/함께걷는길벗회/함안군농민회/함안군여성농민회/함안여성회/함양군농민회/함평군농민회/함천군농민회/함천군여성농민회/함천진보연합/해남군농민회/해아라경기지부/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행복중심생협연합회/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헌법문제연구소/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홍천군농민회/홍천군여성농민회/화성시농민회/화성여성회/화성희망연대/화순군농민회/화순군여성농민회/화순민주청년회/화순진보연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황성군여성농민회/흙살림/흙사단/흙사단 교육운동본부/희망먹거리네트워크

## [발언문] 송기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헌법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해양 생태 주권에 따라 독자적인 일본 오염수 분석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권리를 행사해서 일본에 대해서 즉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점검절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재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리뷰, 재검토한다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법적 절차가 아니라 **2021년 7월**에 일본 정부와 **IAEA** 사이에 임의적으로 체결한 협약에 근거한 지극히 임의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 **10조**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산업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IAEA**의 절차에 모든 것을 맡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단순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이고 규범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지 **IAEA**를 추종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논리에 순응하고 우리 해양 생태 주권에 따른 적극적 조치,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우리의 독자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이 사태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해양법협약 **192조**의 해양생태계보존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른바 유엔해양법협약 **206조**에 따른 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이 축적, 침강, 해저퇴적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국제법 위반의 환경영향평가임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이러한 부작위 그리고 해양 생태주권 포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통령실은 한일회담성과를 “한일관계 복원,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성 확인”이라 쓰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향후 30년간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투기 계획으로 우리 바다, 먹거리, 시민건강이 위험한데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이란게 과연 가능하거나 할까요?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관련 정상간의 대화는 공개할수 없다는 우리정부의 발표가 있는 가운데, 일본 정계 인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윤대통령이 말했다는 뉴스는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국민 안심이 기준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슬로건이 무색한 대통령의 이 발언.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단순히 대한한국만의 문제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세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 “태평양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호히 반대라고 했어야 합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관련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이 통영시의회가 3월 15일, 서천군의회가 3월 23일 일본 원전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동환경연합을 비롯한 안동시민사회단체는 안동시의회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를 결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계로 한창 바쁠 4월 경남시민사회환경단체, 어민, 수협은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993년 10월, 러시아 선박이 핵잠수함에서 생긴 저준위 핵폐기물 900t을 일본 홋카이도섬 서쪽 540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했을 때 일본국민, 일본언론, 일본정부는 러시아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고 세계각국은 이에 호응했습니다. 그 결과 1994년 2월 모든 유형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라는 내용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본의 처지가 지금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연안국임을 일본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교부도 당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국제협약을 제안하던지 혹은 기존 국제협약이나 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환경법의 대원칙은 '사전예방precautionary measures' 투명성, 사전통고 등에 관한 법적, 도덕적

의무이행입니다.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사전예방이라는 대전제도 무시하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인체·환경에 영향없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바다 투기'라는 내용으로 주요 7개국(G7) 기후환경장관회의 환영 성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빠듯하지만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환경어민단체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호혜평등의 한일관계, 선린의 한일관계 우리 5천만 대한민국민도 원합니다. 태평양연안국 국민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은 일본이 한국과 태평양연안국가의 일제 강점의 역사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했을 때,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 투기하지 않았을때만이 가능합니다.

-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
- 태평양국가들의 식량주권 위협하는 후쿠시마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

[사진]

